

### 아벨상 첫 수상자에 장 피에르 세르

프랑스 수학자 장 피에르 세르(77)는 노르웨이 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회 아벨 수학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파리의 프랑스대 학 교수인 세르는 위상수학, 대수기하학 및 수론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82만6,000달러(약 10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노벨상에서 제외된 수학 분야에 대해 수여하는 이 수상제도는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질병과 싸우다가 26세에 별세한 노르웨이의 뛰어난 수학자 닐스 헨리크 아벨을 기려 명명되었다.

### 조지 커존 온라인 연구비 주선 웹구축

미국의 은퇴한 내과의 조지 커존의 주선으로 과학자들은 웹 사이트(FundAScientist.com)를 통해 스폰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비가 필요한 과학자들은 온라인 볼레틴 판에 연구비 신청서를 올리면 연구비 지원자가 이것을 검증한 뒤 연구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커존은 2년 전 미 국립보건원(NIH)에게 혁신적인 구상과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신청했으나 탈락된 과학자들의 명단을 밝히게 만들어 소송에 승리했다. 2003년 3월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4월초까지 3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비 신청서를 올렸으며 10여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커존은 연구비지원 등도 공동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HIV(에이즈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단백질 연구비를 신청하여 NIH 심사에서 탈락한 콜로라도대학 바이러스학자 리랜드 샤피로는 이 제도를 통해 NIH에서 탈락한 많은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에게 소생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논문 도용에 법원이 '파울' 선고

1996년 스페인의 내과의 프란시스코 벨다는 인간의 눈은 너무 느려서 많은 축구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판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1996년 12월호 스페인 축구연맹 잡지에 발표했다. 그 뒤 벨다는 '비슷한' 논문을 '안구의 움직임과 축구법칙 11'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의학전문지 '란셋'(The Lancet)에 실린 것을 보고 저자인 마드리드의 이(耳)신경과 의사 자미 사나브리아 등을 고소했다. 그런데 벨다의 논문은 눈은 빨리 움직일 수 없어 공을 패스할 때 심판은 모든 선수들의 정확한 위치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보상하라고 선고하고 란셋지에게는 판결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란셋지는 법원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 빌 게이츠, 지능사업에 850억원 기증



빌 앤드 메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3년 4월 유전자연구를 돕기 위해 워싱턴대학(시애틀 소재)에 7,000만 달러(약 850만원)를 기증했다. 이 중 6,000만 달러는 1억5,000만 달러가 소요될 지능과학 및 생물공학부 건물(2만4,600평방) 건축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개발도상국에 만연하는 질병치료를 위한 지능사업을 지원한다. 이 새 건물은 14명의 새 교수들과 400명의 대학원생 및 직원을 수용한다. 미 국립보건원은 2년전 지능 연구 우수센터로서 워싱턴대학에 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대학은 지난 1월 인간지능 프로젝트의 저명한 지도자인 유전학자 로버트 워터슨을 센터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에서 유치했다.

### 러시아, 지구에너지 대상 3명 수여

러시아는 새로 지구에너지 상 수상제도를 만들어 거액 과학상 대열에 참여했다.

90만 달러를 나눠 수상하게 될 3명의 수상자는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에 기여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버나-샘페인)의 니크 홀론야크, 레이저 펄스 에너지 개발에 기여한 러시아 과학자카 데미 부총재 게나디 메스야츠와 미국 샌디아고 소재 타이탄사의 더글러스스미스다.

### 러시아 과학책임자에 군 출신 임명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최근 알렉산테르 부르틴(47)소장을 푸틴의 군수산업 선임자문관으로 임명하고 현 과학부 부장관이며 군의 항공전자전문가인 보리스 알요신(48)을 과학, 기술 및 기술혁신정책담당 부총리로 임명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2년동안 과학부의 1,400개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반을 폐쇄하고 나머지 연구기관을 50개의 산업관련 그룹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